

광양~여수~순천 광역교통망 도입 가시화

용역 최종보고회...광역 시내버스보다 무료 환승·할인 제시

재정 분담·지원 방법 등 협의 뒤 내년 상반기 결정하기로

광양과 여수, 순천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3개 지역 시민 대부분은 생활권 통합에 따른 광역 교통망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광역 시내버스 도입보다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양시는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여수~순천시를 연결하는 ‘광역만권 광역교통망 도입 타당성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동식 광양시 부시장을 비롯해 3개시 교통과장과 버스·택시 등 운송업체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광역교통망 도입 타당성 용역은 ▲광역 시내버스 도입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 ▲택시 광역 미터제 도입 등 3가지 안에 대해 분석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 과정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3개 자치단체 시민들은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 도입 79.9%, 광역시내버스 도입 76.

1%, 택시 광역미터제 도입 58.3% 순으로 찬성하는 등 대부분 생활권 통합에 따른 광역 교통망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만 이번 용역 광역시내버스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순천~여수 구간을 제외하고는 순천~광양 구간은 매년 3억3600만원, 광양~여수 구간은 5억1700만원의 적자 등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용역에서는 광역시내버스 도입보다는 기존 시내버스를 이용해 3개시를 연결하고, 무료 환승이나 환승할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내버스 환승할인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환승요금 500원을 기준으로 광양시는 연간 1억4200만원, 순천시는 2억5500만

원, 여수시는 6400만원의 재정보전 지원이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승할인제 도입 시 운송업체간 운행 비율에 따라 수익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택시 광역미터제는 택시운송업체의 반대 의견이 높아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됐다. 광양, 여수, 순천 등 3개시는 이날 초 이번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이 나오면 3개시 운송업체의 이해조정과 재정분담 및 지원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 2017년 상반기 내에 광역교통망 구축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명당3지구 산단 조성 본격화...2018년 완공

광양시는 “태인동 명당3지구에 추진 중인 ‘명당3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광양시는 기업 유치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전체 면적 43만 7998㎡의 명당3지구 산업단지를 오는 2018년 12월까지 총 794억원을 투자해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70% 완료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잔여 보상비를 확보해 나머지 토지도 무난하게 보상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성원가가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투자유치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3.3㎡당 80만원 이하로 공장 용지를 공급하고자 원가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하동화력과 협약을 체결



명당3지구 조감도

해 매립용 토사와 석탄재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성토공사를 진행해 조성원가를 37억여원 절감했다. 광양시는 앞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 시설 용지를 확대하고 휴식과 치유를 함께하는 특색 있는 산단을 조성해 업체 입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2일간의 인도 영화여행 3·4일 중마도서관서

광양시는 “3~4일 중마도서관 3층 문화교실에서 ‘광양시 인도영화축제’가 열린다”고 1일 밝혔다. 주한인도대사관과 주한인도문화원이 후원하고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2일간의 인도여행’을 주제로 최근 인도에서 제작된 영화 가운데 재미와 작품성을 갖춘 5작품을 선보인다.

3일 오전 10시에는 서로에게 지친 4년차 부부가 결혼 생활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타누와 마누의 결혼2’를, 오후 2시에는 사랑과 삶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며 결적으로 손꼽히는 ‘바지라오 마스터니’를, 오후 7시에는 국경을 넘어서 사랑과 호의의 영화 ‘카쉬미르의 소녀’가 상영된다.

둘째 날인 4일 오전 10시에는 신분 격차를 넘어서 사랑과 이를 가로막는 계급제 사회의 압박을 묘사한 ‘올타리’를, 오후 2시에는 많은 인도인들의 존경을 받는 황태자 이야기인 ‘프렘 라탄 단 파요’를 상영한다. 인도 영화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모든 영화가 상영된 후 추첨을 통해 선물도 증정할 예정이다. 전남영상위원회 관계자는 “인도영화축제를 통해 인도인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를 알고 서로 교감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내년 광양매화축제 20주년...“시민 아이디어 주세요”



올 봄 광양매화축제 당시 매화마을 전경.

〈광양시 제공〉

16일까지 공모...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자도 모집

광양시는 “내년이면 스무돌을 맞이하는 ‘광양매화축제’가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축제 프로그램 부문과 다른 축제와 차별화될 아이디어 부문이며, 오는 16일까지 시청 문화관광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적인 공모내용은 매화·매실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과 전시·체험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다.

제출된 의견은 창의성, 대중성, 실현가능성, 경제성, 연관성 등 종합 평가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을 선정하며, 광양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내년 1월 초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된다. 김정호 광양시 관광진흥팀장은 “광양시 대표 축제인 ‘매화축제’가 다양한 지역축제와 경쟁에서 살아남아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내년도 ‘제20회 광양매화축제’에서 전시·체험프로그램에 참여

할 운영자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매화, 매실 및 관광객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소재를 활용해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개인, 단체 등이며, 오는 16일까지 모집한 뒤 이달 말 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양시 홈페이지 ‘제20회 광양매화축제’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고, 문화관광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는 ‘제20회 광양매화축제’를 내년 3월 18일부터 26일까지 광양시 전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고 축제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광양=김경원기자 kkw@kwangju.co.kr

백운장학회, 올 장학금 대상자 278명 선정

5억3700만원 지급

《(재)백운장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해 2016년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장학생 선발 방식도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재)백운장학회는 지난 8월 517명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서류 심사를 완료하고 최근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278명을 선정, 5억37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대상자는 대학생 227명, 초·중·고등학생 44명 등이며, 예·체·기능 대회에서 수상한 체절고 등 관내 7개 학교에 3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장학금이 지급된다. 장학금 지급은 오는 16일 장학증서 수여식 후 개별적으로 계좌입금 된다. 이사회에서는 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과 지역 대학의 협조 사항 등도 논의됐다. 고등학교 장학생 선발 기준에 광양시 주소지 요건이 추가됐으며, 전문계 고등학교인 광양하이테크고와 한국형만물류고에 대한 지원규모를 3000만원으로 대폭 늘려 이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대학교조개학과 평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보건대학교와 한려대학교에는 내년부터 각각 6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장학생 분야에 장애학생 신청 기준을 추가해 순천 선혜학교 등 관외 특수학교 학생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백운장학회는 시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223억원의 기금 조성해 25년 동안 5100여명의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전입자에 ‘광양사랑 상품권’ 준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 전입자에게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 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광양시로 전입신고한 뒤 3개월 이상 실거주한 전입세대와 광양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상품권 등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전입세대는 세대 당 광

양사랑 상품권(5만원)과 쓰레기봉투 20리터 10매를, 전입학생은 1인당 광양사랑 상품권(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전입신고 후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다음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흥기 광양시 총무과장은 “광양시로 전입한 시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광양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서남권 시티투어

정읍·고창·부안, 전라북도 서남권 시티투어에서 아름다운 풍경+전통+삶의 여유를 만나세요

시티투어 이용기간

- 운행기간 - 2016년 9월 ~ 12월 까지
- 당일코스 - 매주 수, 목, 금, 토, 일, 공휴일 출발
- 1박2일코스 - 매주 금, 토, 공휴일, 지정일 출발

탑승장소 안내

- 서울 시청역 8번 출구 앞
- 서울 교대역 9번 출구 앞

예약문의

- 온라인예약 : (주)여행스케치여행사
www.tourssketch.co.kr T. 02-701-2506
- 정읍시 관광개발과
www.jeongeup.go.kr T. 063-539-5233
- 고창군 문화관광과
www.gochang.go.kr T. 063-560-2457
- 부안군 문화관광과
www.buan.go.kr T. 063-580-4778

시티투어 탑승요금

코스	지역	요금
당일코스	내장산 / 공소	27,900
당일코스	내장산 / 고창 국화축제	27,900
당일코스	선운사 열차	81,000
당일코스	고창 / 부안	24,900
당일코스	선운사 / 학원농장 메밀꽃축제	24,900
당일코스	선운사 / 변산	25,900
당일코스	변산반도	24,900
1박2일	서남권 가을	119,000
1박2일	서남권 체험	119,000
1박2일	서남권 문화	119,000

• 여행일정은 현지 사정 및 기상 상태에 따라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인원(25명) 미달 시 행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관광개발과 ☎ 063.539-5233